세계 光산업 한눈에 본다

내일부터 김대중 센터서 국제광산업 전시회

13개국 140개업체 참가…유비쿼터스 등 체험

국내 유일의 광(光)산업 전시회인 '2006 국제광산업 전시회'(Photonics Korea 2006)가 5일부터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광세기 창조'를 주제로 전세계 13개국 140개 업체가 245개의 부스를 설치, 국내외 광산업의 최신제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특히 아시아 최고 권위의 광통신 콘퍼런스인 '2006 APOC'(아시아-태평양광통신국제학술회의)가 함께 개최돼 세계 광산업 흐름을 한 눈에 조망하고, 광주를 광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주요 전시품목은 광통신 부품을 비롯해 레이저 기기 등 광정밀기기, 광소재부품, 광정보기기, 광학기기 등 500여 품목 수천여점. 한국전자통신연구원·KT·하나로 통신 등이 '광가입자망(FTTH)특별관'을 개설해 시민들에게 유비쿼터스 체험을 할 수 있게 했고, 광산업과 의료산업·광산업과 태양광산업·광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을 연계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대거 선보인다.

국내 참가 업체의 경우 삼성전자의 '광제품 종합 솔루션'을 필두로 휘라포토닉스의 '평판형 광분배기'(대통령상), 피피아이의 '광파워분배기'(국무총리상), 우리로 광통신의 '64ch 광분배기'(산업자원부장관상) 등 '광산업의 날' 수상제품 등을 전시한다.

해외에선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12개국 59개사가 참가한다. 특히 국제광기술학회(SPIE)는 따로 전시관을 마련해 소속사인 독일 인제너릭사의 광통신 및 정밀부품, 일본 노조미 포토닉스의 초고속 광스위치, 이스라엘 레이콜 크리스탈의 비선형광부품을 전시한다.

캐나다퀘벡광산업협회(QPN)도 캐나다 국가관을 만들어 세계적인 광기술연구소인 INO의 광통신 및 레이저 제품을 선보인다. 중국무한관광밸리의 7개업체도 12개 부스에 최신 제품을 전시, 중국의 최신 광기술 및 시장동향 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전시회와 함께 열리는 APOC 2006에서는 광 네트워크 분야 등 기존의 4개 세션 외에 LED 분야를 특별세션으로 구성해 세계적인 광기술·시장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9일 광주첨단과학산단내 체육공원·쌍암공원 등에서 열리는 '광산업의 날'행사에는 광산업체 종사자 등 1천여명이 모여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을 갖는다.

광주시는 이번 전시회가 '광주광클러스터'를 세계에 알리고 광기술 고급인력 유인, 해외업체 광주투자 촉진, 신제품 마케팅, 광통신 정보획득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전시회로 광산업체의 수출촉진은 물론 기술정보 획득과 국제시장 동향에의 접근 등이 보다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2006국제광산업전시회/APOC/광산업의 날 주요 행사

일자	행사명	시간	장소
4일	APOC 2006개막식	08:45 ~09:00	김대중 컨벤션센터 컨벤션홀(4층)
	APOC 2006 환영연회	18:30 ~20:30	〃
5일	2006국제광산업전시회 개막식 및 전시장 순시	11:00 ~12:00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장 입구(1층)
	2006국제광산업전시회개막식 환영 오찬	12:00 ~13:30	김대중 컨벤션센터 컨벤션홀(4층)
6일	광산업투자환경설명회 및 확약서(MOU)체결식	13:30 ~15:30	김대중 컨벤션센터 2층(210호실)
	APOC 2006축하연	19:00 ~21:00	광주시립 민속박물관
8일	2006국제광산업전시회 폐막식	15:00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9일	2006년도 광산업의날 제1부 행사(체육대회)	10:00 ~18:30	첨단체육공원
	2006년도 광산업의날 제2부 행사(축제한마당)	20:00 ~23:00	쌍암공원 야외 음악당

무등산 등산로 새롭게 단장

늦재 삼거리~서석대 구간 등 주변 숲길 이정표 설치 등 정비

무등산 등산로가 새롭게 단장됐다. 공원관리사무소~서석대를 잇는 비포장 도로(군 작전도로)를 걷는 대신 주변 숲길을 이용할 수 있게 이정표를 새로 설치했고, 중머리재~새인봉 삼거리 구간 등 훼손된 등산로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1억6천여만원을 들여 무등산 등산로 이정표, 야생동물보호안내판 등 편익시설을 확충했다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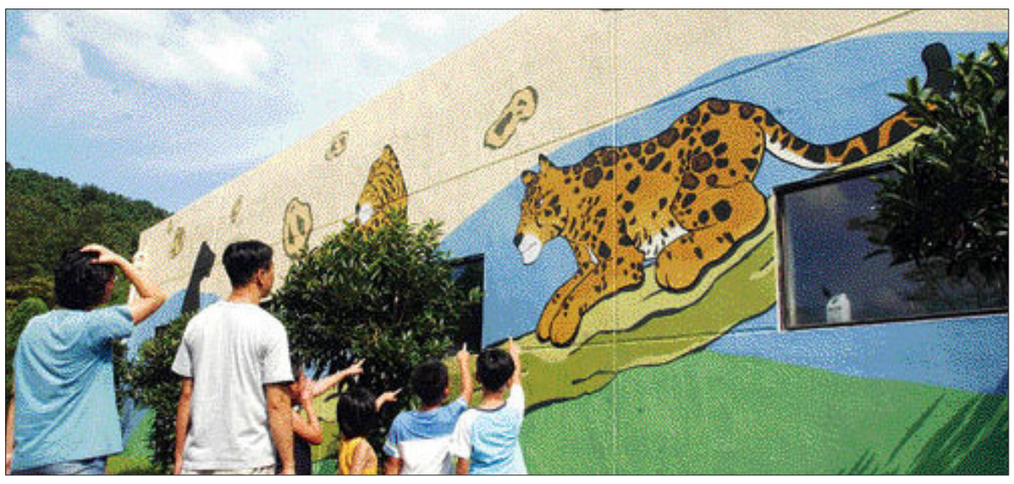
새 단장한 무등산 등산로 가운데 눈에 띄는 구간은 늦재삼거리~서석대를 잇는 6.6㎞구간. 광주시는 이 구간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군 작전도로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한 여름에는 뙤약볕에, 겨울에는 폭설로 인해 '산행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 주변 숲길에 이정표 14개를 만들어 따라 오를수 있게 안내했다. 이 경우 등산객들이 뙤약볕 등에 노출되지 않고 늦재삼거리~동화사터~중봉~군부대복원지~서석대 구간을 3시간에 등반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다.

광주시는 또 새인봉 삼거리~중머리재 1.3㎞ 구간에 돌계단과 보행안전목, 난간로프 등을 설치했다. 풀뿌리 보호를 위해 나무주변에 돌쌓기를 하고 여성 등산객들을 위한 자연발효식 화장실 4동도 세웠다.

광주시내가 보이는 곳에는 59개의 등의자를 마련했으며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무등로 등 3개소에 야생동물 보호 안내판 6개를 설치했다.

임희진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무등산에는 하루 평균 1만8천여명의 등산객들이 찾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자랑하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편익시설과 등산로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우치동물원 맹수벽화 관람객들이 3일 우치동물원이 공개한 표범 우리의 벽화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우치동물원은 지난달 말까지 2억3천만원을 들여 호랑이·곰·표범 등 맹수 우리 4개 동의 벽에 그림을 그려 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연말까지 신축할 캥거루· 얼룩말 우리 등은 철제 울타리를 없애는 등 자연친화적으로 지을 계획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테크노파크 기업 만족도 '최고'

광주테크노파크(TP)가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한국신용정보(주)와 공동으로 실시한 '2006 테크노파크(TP) 조성사업 수혜자 만족도조사'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14개 지역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광주TP(75.60점)는 선발TP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전체TP중에서는 충북TP(76.45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한편 광주TP의 'LED·LD패키징시험생산지원센터'는 최근 광주에서 열린 지역혁신박람회 예선대회에서 최고상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광주테크노파크 김치사업단도 RIS 분야에서 3위로 평가돼 광주시의회 의장상을 받았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정신 계승' 전국마라톤대회

북구청 내달 15일… 5·18묘지

광주학생독립운동, 5·18광주민중항쟁 등의 민주·인권을 위해 싸운 광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마라톤대회가 열린다.

광주시 북구청은 "다음달 15일 국립 5·18 민주묘지 광장에서 마라톤 참가자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광주 정신계승 전국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3일 밝혔다.

대회는 5㎞·10㎞·하프(half) 코스로 나눠 진행되며, 코스는 ▲5㎞의 경우 국립 5·18 민주묘지 광장을 출발해 5·18 구 묘역에서 반환점을 돌고, 다시 광장으로 돌아오게 되며 ▲10㎞는 경열사(광주시 북구 망월동) ▲하프코스는 광주 제4수원지가 반환점이다.

하프코스 1~3등(남·녀 구분)에게는 각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10㎞는 각각 20만원, 15만원, 7만원 ▲5㎞는 10만원 8만원 5만원을 준다. 최연소·최연장자 참가자는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0㎞·하프 코스 참가자에게는 마라톤복 상의와 기록증, 완주메달을 지급하며, 5㎞ 코스는 행사용 티셔츠를 준다. 이밖에 행사 참가자를 위한 각종 기념품과 경품도 준비될 예정이다.

오는 15일까지 인터넷(http://gjspiritmarathon.or.kr)이나 북구청, 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회참가비는 5㎞ 코스는 1만원, 10㎞와 하프코스는 3만원이다. 10㎞ 코스를 20명 이상 접수하는 단체는 참가비용을 10% 할인해준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서비스

수사·법률·의료 동시지원 오늘 조선대서 센터 개소

'광주·전남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가 4일 조선대 병원 의성관에서 개소식을 하고 본격 운영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택순 경찰청장을 비롯한 홍영기 전남지방경찰청장, 권용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홍순표 조선대병원장 등 광주·전남지역 기관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조선대 병원 본관 2층 40여 평의 공간에 마련된 지원센터에는 ▲진술 녹화실 ▲영상진료실 ▲상담실 ▲피해자 안정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여성 경찰관과 상담사, 간호사 등 8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며,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피해자는 남·녀 구분없이 지원된다.

지원센터는 경찰청·여성가족부·조선대학교 병원이 공동협약 체결해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경찰청은 수사 및 법률지원, 조선대학교병원은 의료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지원센터는 개소식에 앞서 지난 8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했으며, 이 결과 모두 24건의 구제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 성폭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과 학교폭력도 각각 6건, 3건에 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당직변호사(4일)	
공재원	223-2100
●법무사회 법률상담(4일)	
김하섭	239-1809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